

대구 주보

연중 제19주일 2017. 8. 13.(가해) 제2064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 14,25-31 참조)

믿음이 부족해 허우적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합니다.

_ 정미연 소화테레사 작

제1독서 1열왕 19,9ㄱ.11-13ㄱ

제2독서 로마 9,1-5

복음 마태 14,22-33.

화답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물위를 걸으시는 능력자 예수님?



이압돈 압돈 신부 | 성유대철본당 주임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참 바쁜 하루를 보내십니다. 남자만도 오천 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는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 군중을 돌려보내십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시고도 혼자 기도의 시간을 갖는 예수님을 보면, 늘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보내시고는 제자들이 있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당신께서야 능력(?)이 있으시니 물위를 걸어서라도 가실 수 있지만, 제자들은 배 시간에 맞춰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어쩌면 당신이 좀 더 바빠 움직이더라도 제자들만큼은 쉬게 해 주려는 배려인지도 모릅니다. 높은 파도를 보고는 바람을 꾸짖어 제자들이 편히 가게 했어야 하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가가는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보니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지 그만큼 얘기하고 보여 줘도 알지 못하니 아직 더 가르칠게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며, "이제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함께 있지 않느냐? 걱정할 것도 겁낼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자기도 물위를 걸어 당신께 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문제될 것은 없지만 어떤 능력을 갖는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닌데, '아직도 배울게 많구나.'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해 보

라고 허락하셨지만,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는 거센 바람에 두려워져 버립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 겁나고 두려웠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지금 물을 밟고 서 있지만, 거센 바람 앞에서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겨 버립니다. 작은 두려움도 용기 전체를 잃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어쩌면 모든 두려움은 혼자여서 느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을 없앨 능력이 있어도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용기를 잃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움에 떠는 베드로에게 바람을 이길 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손을 잡아 주는 행동을 하셨나 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손을 잡아 주는 그 누군가인데, 혼자서 어떤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의 고백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저런 걱정 가운데 바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가운데서 함께하시며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려 기도 중에 만나기를 바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만 바라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을 찾는다면 매 순간, '왜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다음에도 잘 도와주실까?' 의심하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필요하지, 능력자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환심을 사려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필문**

젊은이들에 대한 단상(斷想)

노현석 베드로 신부 | 대학생담당

교구 청년국에서 ‘대학생’과 ‘비다누에바’ 연수를 담당한 지 반년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대학생들을 담당하고 있던 지용식 신부님과 반년 동안 여러 대학을 다니며 미사를 봉헌하고, 비다누에바 지도신부로 연수에 봉사했습니다. 이 반년이 저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게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이들이 패기 없고 열정도 부족하고 너무 쉽게 포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다. 열정도 가득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꺾이지 이겨내며, 다른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면서 화합과 일치를 도모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웃고, 하느님 안에서 울며, 하느님의 자녀들로 자랍니다.

교회는 젊은이들이 ‘본당에만 머물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교리교사로 봉사하거나 청년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행사, 청년회 행사, 교구 행사로 인하여 피치 못하게 본당 반주와 전례를 빠져야겠다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말이 “그럼 미사는 어떻게 하라고?”라는 책임을 묻는 말입니다. 본당에만 머물며 매주 주일미사 전례를 담당하고, 본당 행사 때에는 책상 나르며 주차관리를 하는 것이 교회 젊은이들이 해야 할 일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경험하고 싶은 것들도 많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봉사를 하더라도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

지만 본당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본당의 청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봐야 할까요? 그래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젊은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다누에바(Vida Nueva: 새로운 삶)’ 청년 연수 때 변해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준비기간이 부담될 텐데도 매주 경주, 포항, 구미, 김천에서도 봉사를 하겠다고 옵니다. 그들이 모이는 것은 스스로 하느님을 찾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살게 해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느님”입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하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즘 젊은이들이 미지근하다 답답해하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주시지 않을까요? **필문**



나의



성소 이야기

손상오 루카 신부 | 원로사제

나의 중학교 시절

삼덕성당은 나의 놀이터였고, 꿈이 피어나던 무지개 동산이었으며, 성소의 싹이 움터 나던 못자리였다. 어느 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성당에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을 때, 보좌 신부님이셨던 김영옥 요한 신부님이 나를 부르셨다. 조용히 방에 들어가 앉았더니 신부님이 정색을 하시고는, “너, 잘못된 것 있지?” 하셨다. 깜짝 놀란 나는 당황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신부님이 씩~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 “너 신학교 안 갈래?” 뜻밖의 질문에 당황하며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했다. 한참 뒤에 “신부님, 집에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물러나왔다.

집에 가서 혼자 끙끙 앓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다. “신부님이 나보고 신학교 가지 않겠느냐고 하시는데 어찌면 좋아?”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좀 더 있다가 대신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대학 마치고 가면 어떻겠니?” 그 후 나는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무렵, 보좌 신부님이 다시 나를 불렀다. “너 신학교로 입시 원서를 보냈다.” “으아아악~” 마른하늘에 날벼락같은 이 말씀에 말문이 막혔고, 나는 다시 어머니와 상의하였다. 어머니 말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시험이나 한번 쳐 보려 무나.” “그렇다. 뭐, 시험 한번 못 쳐 보겠나?” 그리고는 시험을 쳤고 성적이 좋아서 합격 통지가 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눈이 많이

나빠서 좀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적이 좋아 떨어뜨리기 아까우니 한번 생활하도록 하자고 결론이 났다고 한다.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참 묘하게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생각으로 신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의 고등학교(소신학교) 시절

서울 혜화동에 자리 잡고 있던 소신학교(성신고등학교)에서 공부는 물론 축구와 농구, 배구 등 갖가지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며 재미있는 신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계속 그렇다는 것은 아니었다. 사춘기 때,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성적의 고민, 친구들과 사이의 우정 갈등, 성소에 대한 회의, 거기에 더하여 집안 문제 등, 소신학교 시절 아버지께서 후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과수원을 맡게 되셨다. 네 명의 형들 중에 아무도 과수원을 맡으려 하지 않아 가끔 내가 가서 어머니와 함께 과수원이나 경영하고 결혼해서 잘 살아볼까 하는 유혹 아닌 유혹이 계속 되었다. 그러던 중 다행히 자형이 어머니를 도와 과수원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유혹 아닌 유혹은 사라졌고,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신학교(서울가톨릭대학교)로 들어가게 되었다.

철학과 2년, 군 생활 2년 6개월도 마치고, 신학과 4년이 번개같이 지나가고, 정신 차릴 여유도 없이 사제서품을 받게 되었다. 후회 없이 걸어온 길이었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것은, 맘껏 사랑해보지 못한 아쉬움과 가정을 꾸려보지 못한 아쉬움만 다독인 채 보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

완전한 기도의 모범인 주님의 기도 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 직접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던 한 제자의 청원으로 주님께서 몸소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루카 11,1-4; 마태 6,9-13 참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라는 뜻을 담고 있기에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것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전례 기도 안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도신경’과 더불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기도문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바치는 공적 기도인 성무일도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며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성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영성체하기 전에 준비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이를 “성령 청원 기도에 담겨 있는 청원과 전구를 요약하며, 영성체로 미리 맛보게 될 천국 잔칫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2770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드리는 일곱 가지 청원을 담고 있는데, 전반부의 세 가지 청원은 하느님과 우리가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의 네 가지 청원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요한 1,18)” 그분과 하나 되어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자녀다운 신뢰심과 함께 우리를 당시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 흠숭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며,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신뢰의 기도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기도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로마 8,15) **聖經**

교구 및 기관 행사

- 8. 13(일) _ 학생 후보 기자단 월모임 (11시, 교구청 별관 4회합실)
- 8. 15(화) _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10시 30분, 주교좌 범어대성당)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11시, 주교좌 계산성당)
- 8. 17(목) _ 파스카 193차 창세기 연수 (20일까지, 연화리 피정의집)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창세 1,10.12.18.21.25.31)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내용 중 ‘생태적 회개(217항)’와 관련하여 교구 생태환경 위원회에서는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세 가지를 정하고 하느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생태 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2017년 3월 1일(재의 수요일) 부터 2018년 사순 시기까지 1년 동안 교구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동참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와 환경을 위한 실천사항

1. 손수건 들고 다니기 (한 장의 기적)
2. 개인 컵 들고 다니기 (한 잔의 기적)
3. 남은 자원 모으기 (오병이어의 기적)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나를 반대하는 이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겠습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4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4일(월) 11:00 계산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14일(월) 11:00 황성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7일(목) 10:00 평화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4일(월) 11:00 신평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19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4일(월) 11:00 죽도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8월 19일(토) 11:00 성모당

대리구 소식

3대리구 전례꽃꽂이 기본형과정

기간: 9.1~12.29 매주 금 13:00~15:00

장소: 3대리구청

수강료: 40만원(재료비 포함)

문의: (010)2604-6896 / 641-5678

성소 | 피정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9.2(토) 10:00

주제: 착한의견의 모후

내용: 찬양미사, 안수,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 신부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성모 승천 대축일 묵주 100단 피정

일시: 8.15(화) 13:00~17: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 별관
(평리성당 앞)

내용: 미사, 강복, 안수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청년 하루 성경 통독 피정

일시: 8.19(토), 바틀로교육센터

주제: 루카복음 통독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회비: 1만 6천원

문의: 바틀로교육센터, (010)8852-9817

교육 | 모집 | 기타

20주 완성 청년 성경 통독

일시: 매주 수 20:00

장소: 예수성심시녀회 앗숨 분원

대상: 35세 미만 남녀 청년

문의: (010)9286-2247

말씀으로 마음 치유(독서치료)

일시: 9월부터 10주간

시간: (화) 10:00~12:30

(금) 19:00~21:30

대상: 30~50대 남녀 / 참가비: 12만원

문의: 성바오로수도회, 256-4592

200차 젊은이들을 위한

꽃동네 젊은이 성령기도회

일시: 9.2(토) 9:30~18:00

장소: 꽃동네 사랑의연수원(도시락 지참)

내용: 젊은이 찬미와 체험담, 성극, 특별
강의, 치유미사 / 문의: (010)5490-5345

여대생 기숙사 '과달루페집' 모집(종교무관)

위치: 대전 서구 갈마로 187-1(괴정동)

주최: 성체선교콜라라수녀회

문의: (042)534-8876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내 집처럼 편안하고 즐거운 곳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가톨릭신문사 성지 순례

일시: 9.2(토), 지중해 크루즈

경비: 558만원부터(13박 14일)

일시: 9.11(월), 발칸반도

경비: 385만원(11박 12일)

문의: (02)2281-9070 / www.ctour.org

관덕정 국내 성지 순례

일시: 9.17(일)

장소: 수원교구 은이성지

회비: 3만원(중식 포함)

신청: 8.16(수)부터 선착순

문의: 관덕정, 254-0151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 순례

출발: 매월 1회, 4박 5일 / 63만원

지역: 가고시마, 나가사키

지도: 송진욱 신부

주관: 가고시마교구

문의: (010)3005-9028

박익현 구심내과 의원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원장 박 의 현(안드레아)
☎(053)252-1785

네오미피부과

원장/피부과 전문의 이준호 시메온

소아, 난치 피부질환 클리닉
명품레이저 보유

월성CGV 건너편 T.053)656-0075

NAVER 네오미피부과 검색

강기보고혈내과

원 장 내과전문의 조 재 현 (세례자요한)

위·대장내시경 / 건강검진
당뇨병·고혈압 및 내과질환

Tel. 053 791 7585

지하철 2호선 신매역 경산방향 5번 출구
신원은행 사지점 건물 3층 (대구벌대로 3218)

5인의 분야별 전문의
검진부터 맞춤 진료까지

5속안심내과

지하철 1호선 각산역 2번 출구
053)965-6633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 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교),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대형선풍기 냉풍기
게르마늄 찜질기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전자관 1층 239호(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45)

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니엘)/청농사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행사 | 모임

청년국 플리마켓 개최

일시: 9.2(토) 13:00~20:00
 장소: 삼덕성당 카페 '라우다떼'
 신청: <http://dcy.co.kr>
 새소식 양식 다운 후 신청

제4회 교구 노인의 날

일시: 9.23(토) 10:30~16:00, 성모당 일대
 내용: 미사, 중식, 시니어서가 경연대회
 대상: 65세 이상 남녀
 문의: 교구 노인사목담당, 250-3077

제42회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

일시: 9.30(토) 9:00 개최식
 장소: 대구가톨릭대 효성교정 테니스장
 마감: 8.22(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성모기사회 주관 '콜베의 밤'

일시: 8.14(월) 18:30
 문의: 성모기사회, (010)9100-4114

8월 함께 꿈 미사

일시: 8.16(수) 19:30, 삼덕성당
 주제: 헌법으로 본 한국 현대사
 강사: 한흥구 교수
 주최: 정의평화위원회

교육 | 모집

8월 가나 강좌

일시: 8.20(일) 10:00~17:30(시간엄수)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마리아관
 참가비: 1인 2만원(당일 신청)
 무료주차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38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개설

기간: 8.31~9.28 매주 목, 9:30~14:30
 장소: 1대리구 대봉성당 / 10만원
 대상: 가족을 사랑하는 모든 어머니
 문의: 교구 가정사목담당, 250-3114
 (010)6499-3114

2017 소람 상담사목교육 하반기 모집

내용: 상담심리기초, 가족관계학,
 상담심리실습, 성격심리학
 신청비: 과목당 5만원
 문의: 소람상담소, 250-3100

상담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당사자 및 가족상담)
 대상: 상담 전공자 및 유경험자
 문의: 대구서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8-3778 / 638-8788

새빛학교 국어반 신입생 모집

과정: 한글 맞춤법과 문장의 이해
 마감: 8.22(화)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2017_2학기 대가대평생교육원 모집

학점은행: 사회복지 및 아동학, 음악전공

보건의학 개설편(안경, 방사선, 물리치료)
 취미·교양·자격증 및 전문가 양성과정
 음악원: 1:1레슨 / 마감: 9.2(토)
 개강: 9.4(월) / 신청: 660-5554~7

모래놀이 치료사 분석심리 교육 및 2학기 전문가 과정 모집

일자: 8.26(토)
 자격: 학사 이상
 장소: 성토마스성당 교육관
 문의: 박카타리나 수녀, (010)5635-1775
 김자영, (010)8802-6839

말씀과 삶 안으로 한걸음 더 깊이

개강: 9.4 매주 월 10:00 / 19:30
 장소: 베네딕도성경학교(사수동 800)
 내용: 구약말기의 성경문헌(심화과정)
 대상: 성경 기초과정을 공부하신 분
 문의: 313-3050 / (010)7185-3431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143-05-000-837-8
 문의: 650-3428~9

채용 | 안내

부산 분도명상의집 주방 여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사진 첨부) / 주거 가능
 문의: (051)582-4573
 (010)6650-4574

bundobusan@naver.com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장 **박중원**(소시모)
 현,연세대의료교수
☎(053)626-8881~5

명동성당 앞 임마누엘 결혼정보
결혼정보 44년 전통
 명동성당 정문 앞 한국 YWCA 504호
☎ 02)757-3343 이수신나

유러피안 스타일 캐주얼 레스토랑
moumou
 무우스
 스테이크(한우)·파스타·화덕피자·샐러드바
 대구시 수성구 용학로 13(수성동)
 예약문의 762 7555 | 김경희(스페인어)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신홍식(루가)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원장 정승우(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고객님의 소중한 정보, 이제는 안전하게 파세요!
시니어문서파쇄사업
 시니어문서파쇄사업은 지역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대구서구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아사업입니다.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대구서구시니어클럽
 문의 ☎ 053)563-1025 노현영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